

1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8) 균형 잡힌 변증 - 이재만 | 2쪽 |
| 2. IMPACT (49) 미시적 걸작품: 눈 결정 - 대구지부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16) 맛 나는 삶 - 김경태 | 8쪽 |
| 4. 참 아름다워라! (34) 미이라화된 공룡 - 창조과학회 | 10쪽 |

인사말



올해는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재건국 이후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입니다.

‘8’이라는 수가 성경적으로 부활과 새 시작을 뜻하는 만큼, 2008년도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더욱 더 찬양하고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못한 질그릇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일들 속에서도 “GOD did it!(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조과학이란 귀한 도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만남과 연구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008년 창조과학회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권 오 주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람과 품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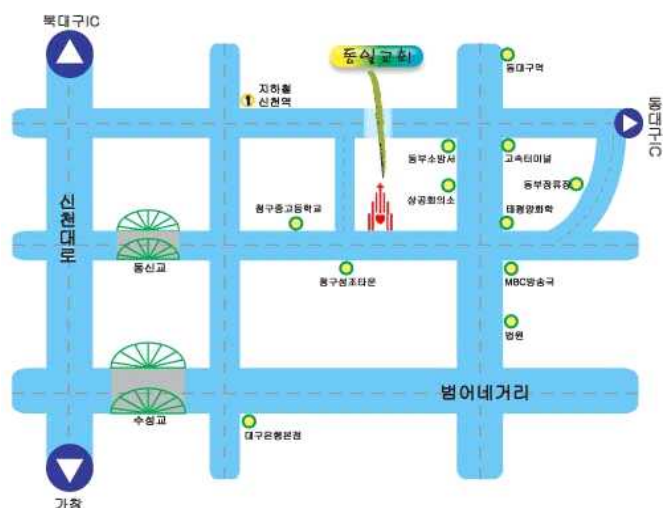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7년 2월 중으로 예정

장소: 통일교회 통일복음센터 103호

 (053) 743-6058

내용: 연말결산모임



균형 잡힌 변증 (Balanced Apologetics)

신학분야 중에 성서변증학(Biblical apologetics; Apologetics is a formal term for the discipline that rationally seeks to defend the Bible and Christianity. It derives from the Greek apologia (cf. 1 Pet. 3:15) and means to give a reason or defense of something (it does not mean to be sorry in this context). We call this Biblical Apologetics because here we are seeking to give a rational defense of the Bible, and all that goes with it.)이란 것이 있다. 왜 성경이 옳으냐? 왜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나? 등의 이유를 공부하는 분야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이 사실임을 변론하기 위한 학문 분야이다.

성경을 먼저 펼쳐보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히11:3)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조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 한다. 믿음 부분과 사실(세계) 부분이다. 믿음과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느 곳에서도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 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막연히 어렵짐작한 창조주가 아니라 “성경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일을 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을 이야기 한다.

성경은 성경 자체에 관하여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 경전과는 달리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과, 첫 사람의 타락, 대홍수, 바벨탑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과 대등하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분명한 지구상에 시공간 속에 사건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믿음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분명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말씀, 뜻과 같은 시공간을 초월한 부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롬11:33), 시공간 속에 이루어진 사실은 그 증거를 남겨놓았을 수밖에 없다 (롬1:20).

변증학에서 하나님의 성품, 말씀, 뜻과 같이, 이미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변증하는 방법을 전제적 방법(Presuppositional approach)이라고 한다. 반면에 역사상에 뿌려놓은 증거들을 이용하여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방법을 증거적 방법(Evidential approach)이라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신학교에서 증거적 접근 방법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점을 보면 진화론적 사고가 신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부터이다.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양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진화론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과 너무 달랐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가 흔들린다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화론의 권위에 눌러 마치 증거적인 것을 요구하면 사실의 진위여부를 생각하기도 전에 믿음의 도약을 요구했다.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등등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대부분은 전제적 변증만을 취급한다. 필자가 다니던 신학교도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학교지만, 학생들이 증거적인 질문을 할 때면 “우리 학교는 전제적 신학교(Presuppositional seminary)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일축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전제적인 변증만을 취급하자 당연히 교회에서도 증거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물론 전제적인 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만약 전제적 신앙만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시공간 속에서 벌어진 성경의 사실에 질문만을 간직한 채 물어 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하나님이 막연해지고, 성경이 막연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많은데, 믿음(?)으로 덮어야 하는 답답함 속에 있어야 했다. 마치 사실의 기초 위에 서지 않는 구름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실”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 전제적인 방법과 증거적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진화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과학적 진리라는 것과,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누가 물어보더라고 “사실이니까 믿는다”라는 대답이 자신 있게 나와야 한다.

미시적 걸작품: 눈 결정 속에서 발견되는 설계

(Microscopic Masterpieces: Discovering Design in Snow Crystal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 중의 하나는 추운 겨울밤에 하늘에서 내리는 놀랍도록 다양한 형태의 눈 결정이다. 태양 주위에서의 지구 운동에 대한 법칙으로 알려진 유명한 천문학자 요한 케플러(Johann Kepler)는 젊고 포부에 찬 과학자였을 때 *새해의 선물, 즉 육각눈송이에 관하여* 라고 제목을 붙인 연구를 실시했다.



Figure 10. Dendrite.

사진 10. 나뭇가지 모양 (Dendrite)

케플러는 왜커(John Matthew Wacker)의 집에서 열리는 송년파티로 가는 길에 체크슬로바키아, 프라하의 카를교(Karlsbrücke; Charles Bridge)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그의 외투에 떨어진 작은 알갱이들이 모두다 6개의 모서리와 깃 모양의 대칭면(feathered radii)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새해 선물도 없이 자신의 후원자(patron) 앞에 나타난 것에 난처함을 느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별처럼 보이는” 눈 결정의 양상에 대한 연구로 완벽한 선물을 하리라고 결심했다.

케플러의 연구는 눈 결정의 미시적 구조와 그것들이 형성되는 방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줄만한 현미경이나 다른 장비라곤 하나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는 왜 눈 결정이 모두다 6개의 모서리를 가지는지 설명하는데 있어서 시각적 관찰, 유추, 논리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결정학(crystallography) 분야에 주요한 것으로 증명된 산더미같이 많은 내용의 포탄, 벌집, 꽃, 그리고 다른 공간을 메우는 도형들을 살폈다. 많은 가능한 설명에 대한 상당한 조사 후에 그는 마침내 “모양을 만드는 힘”(formative faculty)이 얼음의 요소 내에 존재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하도록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고의 지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 그렇게 멋지고 명료하게 표현된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현대적 접근법 (Modern Approaches)



Figure 1. Nee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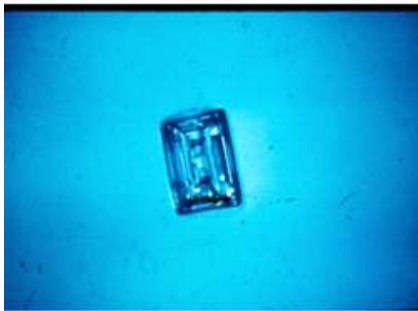


Figure 2. Hexagonal Column.



Figure 3. Hexagonal Plate.

할렛(Hallet)과 메이슨(Mason)은 눈 결정이 육각형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 현대적 설명을 제공했다. 그들은 물분자가 온도에 따라 얼음결정의 격자구조로 선택적으로 융합한다는 것을 밝혔다. 성장하는 결정에 떨어지는 주변의 수증기 분자가 그것의 표면으로 이동해서 4가지 온도조건에 따라서 측면(axial plane)이나 기초평면(basal plane)에 고정된다. 예를 들면, 눈 결정은 온도가 약 -3°C 와 -8°C 사이일 때 사진 1, 2와 같은 길고, 가는 바늘과 주상을 형성하면서 길게 자란다. 온도가 약 -8°C 와 -25°C 사이일 때 사진 3으로부터 10에서 보여주듯이 판상결정을 형성하게 된다. 아름다운 별 모양과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은 약 -15°C 에서 형성된다. 게다가, 대기의 상대습도와 과냉각 물방울(supercooled liquid cloud droplet)의 존재로 말미암아 서리와 수지상 성장(riming and dendritic growth)으로 알려진 2차 성장현상이 유발된다. 사진 5의 판 가장 자리에 붙어있는 작고 어두운 구들은 결정이 지표면으로 떨어질 때 서리로 눈 결정에 모여서 붙는 구름의 물방울들이다. 사진 6에서 10의 나뭇가지 모양과 깃털 모양의 가장자리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눈 결정이 빨리 성장할 때 형성된다.

사진 1. 바늘모양 사진 2. 육각형 주상 사진 3. 육각형 판상

다른 수많은 과학자들도 또한 눈 결정을 세밀하게 연구했다. 이들 가운데 저명한 이로 나카야(Nakaya), 마고노(Magono), 그리고 리(Lee)가 있다. 게다가, 많은 결정학자들이 결정성장의 특징과 왜 분자들과 원자들이 제한된 수의 기본패턴을 형성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썼다. 눈 결정의 육각형 대칭에 대한 현대적 설명은 눈 결정이 얼음 내 분자의 내부적 배열에 대한 거시적, 외부적 현시라는 것이다. 분자들은 가장 낮은 자유 에너지의 내부적 패턴, 즉 높은 구조적 대칭성을 보여주는 패턴을 형성한다. 물분자의 경우, 이것은 조밀육방구조(hexagonal close pack)라고 불리는 일종의 대칭성이다. 과학은 여전히 케플러가 “모양을 만드는 힘”이라고 부른 이러한 특성의 기원(genesis)에 대해 찾고 있다.

창조주의 증거 (Evidence of the Creator)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는 남아있다.

케플러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줬던 그 사실이 여전히 도전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3차원의 기하학적 대칭성은 시각적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무작위적인 상호작용과 교란으로 지배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우주에서 어떻게 그것이 유발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을 기대하지 않아야 하지만, 단순한 관찰 결과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과학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만약 육각형의 눈송이가 너무나 복잡하다면, 물리학의 가정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관찰 결과로의 지름길은 없는가? 궁극적인 법칙 내의 어떤 것이 시각적으로 완벽한 패턴을 만드는가?

과학은 언제나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심지어 더 기초적인 질문을 묻게 된다. 어떻게 무작위적이고 무질서한 우주라는 배경에서 질서가 설명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주는 질서를 이루고 있지 않아야만 한다. 이 구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사진 4. 넓은 가지의 별 모양

사진 5. 확장과 서리가 있는 육각형 판상

사진 6. 별 모양



Figure 4. Broad branch stellar.



Figure 5. Hexagonal Plate with extensions and rim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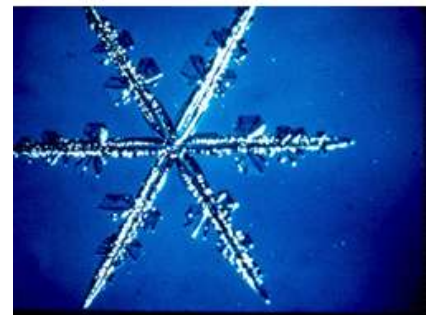


Figure 6. Stellar.

그 이슈는 바뀔 수 있다. 6개의 모서리를 가진 눈송이에 의해서 예시되었듯이 우리가 우주에서 질서와 설계를 관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질서와 설계를 공급하는 창조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케플러는 기본적으로 그의 용어인 “모양을 만드는 힘”을 제안했을 때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경향이 이 세상의 바로 그 원자와 분자들이 이러한 질서를 만들도록 지어졌다는 것이다. 산소와 수소 원자의 특징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밀육각형 패턴을 만들고 6개의 모서리를 가진 눈송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조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선형분자(linear molecules)와 달리, 물 분자는 비대칭이다. 육각형 배열을 선호하는 것이 그 비대칭이다.

얼음 결정은 아름답고 외형적인 형태를 만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부적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얼음결정 성장 패턴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확립된 것은 기본적인 육각형에 선조세공을 추가하는 온도의존도이다. 기둥 모양, 바늘 모양, 판 모양, 별 모양, 그리고 나뭇가지 모양은 눈 결정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추가적인 패턴 중의 단지 일부일 뿐이다. 사실상, 단 하나의 얼음 결정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개별적 분자들의 가능한 조합이 무수하기 때문에, 진실로 어떠한 눈 결정도 똑같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 단순한 물분자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의 “모양을 만드는 힘”을 보여준다면, 생명체를 결정하는 DNA 분자와 같이 더 커다란 분자 내에는 얼마나 더 많은 설계가 들어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DNA와 자연법칙 내에서 보는 질서와 설계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영원히 잠들게 한다. 바로 그 분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그 분의 사랑을 증거 한다.

나는 천문학자 세이건(Carl Sagan)과 그가 죽기 전인 2년간 서신을 왕래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의 편지 중 하나에서, 그는 “내가 보는 지구 역사의 유일한 ‘저자’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있으며 그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또 다른 논제이자, 매우 어려운 논제입니다.”라고 썼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설계의 증거는 이교도(unbelievers)라고 공언한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강력한 증거물이다.

이전의 Acts & Facts 기사에서 눈 결정의 성장을 자연발생적인 진화(spontaneous evolution)에 필요할 수도 있는 질서의 증가에 대한 정당화로 잘못 사용한 것을 논했었다. 눈 결정의 성장 동안 우주 내의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일치하는 질서의 최종적 감소로 귀착함을 보여줬다. 눈 결정 내의 질서의 존재와 성장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연적 과정 내의 그 분의 설계, 그리고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그 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주님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 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 쉬운성경)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말씀의 확인이 필요하겠는가?

눈 결정의 아름다운 이미지들 (Beautiful Images of Snow Crystals)



Figure 7. Dendrite.

Figure 8. Double dendrite.

Figure 9. Capped Columns.

사진 7. 나뭇가지모양

사진 8. 이중 나뭇가지모양

사진 9. 평판 각진 기둥모양

눈 결정을 좀 더 상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현미경사진을 담고 있는 몇 권의 책을 소개한다. ‘눈송이 사나이’로 알려진 버몬트의 농부에 의해서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찍힌 2,000개가 넘는 눈 결정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전형적인 책인, 벤틀리(Bentley)의 눈 결정 (Snow Crystals)이 있다. 상을 받은 눈송이 사진들의 현대 모음집이 최근에 리브레히트(Libbrecht)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그의 눈 결정 사진들 중의 일부는 최근에 미국 체신부(U.S. Postal Service)의 우표 모음집에 사용되었다. 그는 또한 www.snowcrystals.com 이라는 웹사이트도 가지고 있다.

원문출처: <http://icr.org/article/3555/> **참조**



맛 나는 삶

연구실의 학생들과 함께 구룡포에서 북쪽으로 약 10분간 올라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석병교회 양로원을 찾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정성껏 장기자랑을 준비했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아 선물도 준비하고 저녁거리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서 어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 시간에 석병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근처 식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는데 비봉치라는 생선회를 처음으로 맛보았다. 이 생선은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기름이 살에 연하게 박혀 있어서 얼마나 고소했는지...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고 이들로부터는 제각기 독특한 맛이 천차만별로 나는데 이를 구별하는 우리들의 감각은 경이롭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맛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 혀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을 구별할 수 있는 수용체 세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학조미료 맛을 감지하는 우마미 수용체 세포도 확인이 되었다. 혀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뢰라고 불리는 직경 50-70mm의 타원형 구조들이 있다. 사람에 따라 미뢰의 분포와 수가 다르지만 혀에는 500-20,000개의 미뢰가 있고 보통 사람의 경우는 평균 2,000-5,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미뢰는 특정한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의 미뢰에는 50-150개의 미각 세포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쓴맛에 민감하고 반면에 남성들은 단맛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여성들이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쓴맛을 가지는 독성물질이 음식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폐경기가 지나면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해서 블랙커피와 같이 아주 쓴 음료도 즐겨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5번 염색체에 미각 관련 유전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유전자의 발현 차이에 따라 미뢰의 밀도가 달라지고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미각 세포는 약 2주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미뢰에 있는 미각세포의 작용으로 초콜릿이나 딸기, 불고기,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이들 음식이 가지는 수많은 맛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음식마다 가지는 다양한 맛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이유는, 각 음식이 갖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맛을 내는 미뢰를 자극하면서, 맛을 내는 화학물질의 농도와 가짓수가 음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조합으로 미뢰를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음식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음식의 미묘한 맛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양파를 먹을 때 냄새를 못 맡게 하고 먹는다면 우리는 사과를 먹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음식이 가지는 질감과 온도도 맛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뜨겁거나 매운 성분은 혀에서 통증 감각을 활성화 시켜 다른 맛감각과 어우러져 맛을 구별시켜 준다. 사람과는 달리 파리와 나비 같은 곤충은 혀가 없지만 다리에 달려 있는 털이나 입의 특정부위를 통해 맛을 구별한다. 파리는 다리 표면에 있는 털의 끝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고 그 밑에 감각세포가 있어 맛을 느낀다. 물고기는 미뢰가 머리 표면에 존재하고 메기는 수염에도 미뢰가 있어 맛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동물에 따라 다양하게 맛을 감지하는 기관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들의 작용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먹이를 구별하여 섭취한다. 우리는 매일 식사 때마다 또는 간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접하면서 각 음식이 가지는 독특한 맛을 음미하며 즐긴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즐기며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게도 음식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듯이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음식으로 알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고서 한 달을 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메시지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는 없다. 우리는 매일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실수하기 쉽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패배하기 쉽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미각 세포를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신령한 의미를 분간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맛에 대해서는 감각이 둔하여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맹이라 한다. 영혼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맛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영적 미맹이 되어 우리 영혼의 성장이 왜곡될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신령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매일 나에게 지시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영적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 언젠가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해 본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참조**



미이라화된 공룡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스(National Geographic News)에 따르면, 미이라화(mummified) 된 공룡의 사체가 미국 북서부의 몬태나 주의 헬 크릭(Hell Creek)이라는 곳의 사암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룡 사체가 너무도 완벽해서 피부, 근육은 물론이거니와, 위(stomach) 속에 들어 있는 마지막 식사까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브라킬로포사우루스(brachylophosaurus) 공룡의 표본으로 진화론적 연대로 7천7백만 년 전에 살았다고 추정되고 있는 오리주둥이 공룡으로, 6.6m 길이에, 1.5-2톤의 무게, 3-4세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이라화 된 상태로 발견되어진 네 번째 공룡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경우는 1900년대 초에 발견되어졌습니다. 몬태나의 필립 카운티 박물관의 관장인 네이트 머피(Nate Murphy)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섬세한 외부 모습을 가진 공룡의 발견은, 말이 끄는 마차에서 증기 엔진을 장착한 증기기관차로의 도약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룡의 발견은 과학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부조직(soft tissues)은 공룡 화석 중 단지 0.1%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2000년 여름에 처음으로 발견되어 2002.10.9-12에 오클라호마의 노만(Norman)에서 있었던 62회 척추고생물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공룡은 1917년에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벽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레오나르도(Leonardo)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화석화된 골격의 90%는 놀랍도록 잘 보존된 연부조직으로 덮여있었는데, 여기에는 근육, 발톱 물질, 주둥이(beak), 살아있었을 때 당신의 귓불처럼 부드러웠을 피부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위장 내용물은 너무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레오나르도의 마지막 식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치류(ferns), 침엽수(conifers), 목련(magnolias) 속 식물 등과 40여 종류의 다른 식물들의 화분들로 양념되어진 샐러드였습니다. 머피(Murphy)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생물학(Paleontology)은 정확한 과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뼈(bones)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그 동물이 무엇처럼 보였는지,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한 이론들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레오나르도와 같은 표본은 많은 추측들을 폐기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티븐 스피버그가 제대로 표현했었는지를 들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상세한 모습들이 6천5백만 년 동안 손상 없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단지 1백만 년이라는 기간도 대륙들이 이동하고, 산들이 융기, 침강하고, 격변들이 지구를 할퀴었을 너무나 길고도 긴 시간일 것입니다. 이 화석들이 공룡들의 나이에 대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론들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 윌랜드(Carl Wieland)는 창조지(Creation magazine)에서 많은 공룡 화석들이 아직도 원래의 뼈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만약 비교적 최근의 과거까지 공룡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패러다임의 이동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석들은 진화론적 가정(assumptions)들을 재평가해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지 않은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멋진 공룡을 발견하는 것일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공룡 시대--진화론적으로 2억 4700만 년~약 6500만 년 전까지로 약 1억 8200만 년에 해당--의 소나무(pine trees)가 호주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살아있는 화석(living fossils)들이 진화론적 추정 연대 틀로 수억 년 전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골로새서 1:16(표준새번역 — 개

정)

창조퀴즈>

미국 북서부의 몬태나 주에서 2000년에 미이라화 된 상태로 발견된 이 공룡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